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이우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6:20-2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산 위의 가르침(2)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5월 26일(야외예배)	6월 2일
윤원신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대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27) 산 위의 가르침(1)

본문 : 눅6:20-26

예수님의 첫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좀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Joy 와 Happniess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하며 해피는 이 땅에서 누구라 누리는 일시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만약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행복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웃고 다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울상을 짓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라도 웃고 긍정의 힘을 뿜어내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웃을 날보다는 울 날이 더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무언가 빼앗기고 잃어 버린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을 이겨서 얻어낸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과 그 싸움의 승패는 나에게 있지 않고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과 이 기쁨을 발견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이 땅의 보이는 복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 하나 잃어 버리게 하셔서 빈털털이로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란 십자가의 길 위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절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복이란 세상에서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닌 내안에 보배를 가진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자들이 예수를 찾으리 없기에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주리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욕먹게 하시고 버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아는 자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만을 부르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